



전북대 안문석 교수, 학생 글로벌 경험 1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정치외교학과 안문석 교수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학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지난 7일 전북대에 따르면 2012년 조교수로 부임해 13년째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 온 안 교수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번 기부가 전북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전북대가 전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지역민들과 전북 출신의 뜻있는 분들의 기부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교수는 "전국과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총장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안문석 교수님의 깊은 뜻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2025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초등)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 초등 엘리트 배드민턴대회로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회장 이웅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회장 심용현)와 김제시배드민턴협회(회장 이병순)가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73개팀 435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해 남녀 초등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대회기간 동안 초등학생 선수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힘찬 기합 소리 그리고 경기장을 찾은 학부모 등의 응원과 함성, 박수갈채가 김제 실내체육관을 울려 퍼지게 달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대회는 어느 대회보다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기간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이 김제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어 갈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돼 배드민턴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7일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과 '전국연맹중별배드민턴대회(초등)'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간 유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기전대, 학생 역량강화시스템 경진대회 시상식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내가 만드는 진로설계! 학생역량강화시스템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소감문 작성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학생들의 균형잡힌 경력개발과 미래지향적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자기소개서 솔루션을 활용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역량을 강화, 취업 준비 과정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학과, 사회복지상담과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우수 작성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이연호 학생(사회복지상담과)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진로 이해와 자기 분석이 구체화 됐다"며 "사회복지상담이라는 막연했던 분야의 진로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교육과 실무경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 진로준비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조덕현 센터장은 "역량개발시스템 경진대회를 통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을 함께 일군 군민 화합 한마당’

무주군민체육대회 성료... 무주읍 비릇 6개 읍면 주민 등 3천여명 한자리

제24회 무주군민체육대회가 지난 8일, 무주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중보단체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무주읍내무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종목별 선수들과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포함한 무주군민 3천여 명이 참석해 화합의 장을 이뤘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은 종목별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하나 되는 날"이라며 "무주군체육회는 앞으로도 체육 활동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을 선도하고 종목별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체육대회는 자연특별시 무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를 함께 일군 군민들의 화합 한마당"이라며 "사계절 동고동락하는 우리가 '무주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군민들은 반딧불체육관과 풋살장, 족구장, 소이 나루공원, 등나무운동장 등지에서 게이트볼과 풋살, 테니스, 족구, 그리운드골프, 고리걸기, 제기차기, 투호, 한궁, 윷놀이,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릴레이 계주 등 다양한 종목에 직접 참가하거나 응원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히 군산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가 눈에 띈다.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군산시 로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어쩌다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 시리즈를 기획·발언하며,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군산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끊임없는 지역애인이 되겠다"며 "사회적 약자, 청년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해 체감형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그동안의 정책 중심 의정활동은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정보사상, 등 입법 역량과 지역사회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 /군산=김만호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 2025 지방자치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난날 28일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경봉 의원은 제4대부터 제7대까지 시의원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9대 시의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가 눈에 띈다.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군산시 로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어쩌다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 시리즈를 기획·발언하며,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군산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끊임없는 지역애인이 되겠다"며 "사회적 약자, 청년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해 체감형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그동안의 정책 중심 의정활동은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정보사상, 등 입법 역량과 지역사회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 /군산=김만호 기자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금융, 전북은행 '희망의 공부방' 오픈

아이들의 배움터에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졌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7일 순창군 순창읍에 위치한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2호' 오픈식을 열고, 지역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문을 연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개소 이후 오랜 기간 사용한 노후 물품으로 인해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그동안 안전문제가 우려됐던 철제 개인사물함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학습지도와 프로그램 진행용 컴퓨터를 새 장비로 교체했다. 또한 학습용 의자, 독서용 빈백소파, 불박이 수납장 등을 새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열린 오픈식에는 조광희 순창군 부군수, 김정숙 순창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현 순창군가족센터장, 배은숙 순창군다함께돌봄센터장,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 김기석 순창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순창=이양원 기자



전주기전대,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

전주기전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교내에서 '2025학년도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잘 쓴 글 한 편, 열 스펙 안 부럽다'를 슬로건으로 실제 기업 서류전형 방식을 반영한 평가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며 '형식보다 진정성'의 가치를 입증했다.

대상은 응급구조과 S 박대훈 학생이 차지했다. 박 학생은 직무 이해도와 구체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지원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공모전을 통해 막연했던 취업 준비가 구체화됐고, 작은 도전이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학생들, 연합학술대회 우수상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금융보험학과는 '제29회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상(보합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립목포대학교 남양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진행, 전주대, 목포대, 순천현대, 대구대, 서원대, 협성대, 동의대, 흥익대 등 전국대학에서 보험관련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의 다양한 학술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재학생들(안신재, 차지민, 최지수, 김원우)로 구성된 링크루 팀은 "기업은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라는 주제발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링크루 팀 대표를 맡고있는 금융보험학과 안신재 학생은 "전보련에 참여한 선배들을 보며 1학년부터 전보련 참여의 꿈을 키웠다"며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신원케미칼 서성환 대표, 입실군에 기부금 기탁

전주시 소재 화학제품 유통기업 신원케미칼의 서성환 대표가 지난 5일 입실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신원케미칼은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원 출신인 서 대표는 전북 각 시·군에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도 그 일환으로 입실군을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입실군은 열한 번째 기부지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대표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 대표는 "지역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실=진종영 기자



최길웅 부안소방서장, 제63회 소방의 날 격려 방문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이 지난 7일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분서와 관내 119안전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한 현상 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최서장은 각 부서를 직접 찾아가 음료와 다과 세트를 전달하며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최길웅 서장은 "소방의 날은 우리 모두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의료원, 찾아가는 행복 관리길 의료서비스 지원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며, 지난 6일 장수군 반암면 봉화체육관에서 지역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관리길' 의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남원의료원이 장수군 반암면, 그리고 전북도 사회복지서비스원과 함께 연계 추진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의료, 상담,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미래생활, 무주군에 여성용품 헤이즈 1400팩 기부

생활용품 전문기업 미래생활(주)대표 김광호(호)이 7일 자사 브랜드 '잘풀리는집'의 천자연주의 여성용품 '헤이즈' 1천4백 팩을 무주군 청소년과 출산가정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대표 이석범)를 통해 성사됐으며 총 50상자(1상자당 28팩, 총 1천4백 팩) 약 170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에 전달됐다. 해당 물품은 지역 내 한 부모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출산가정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광호 미래생활(주)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무주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